

여기에는 미국산 천연꿀의 관세를 대폭 낮추게 될 한·미FTA도 농가들에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시급한 밀원수 조성=아카시나무의 황화현상에 대한 적절한 방제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5년 내에 밀원수는 고갈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농가들은 정부의 조림사업이 목재 가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밀원수로서의 가치가 큰 나무를 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임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가치는 약 1,000억원으로 양봉산물 생산액의 절반가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국유지나 공유지에 현재처럼 17만ha규모의 밀원수가 또 하나 조성되면 안정적인 벌꿀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새로운 밀원수를 조성할 경우 헛개나무와 음나무 등 6월과 7월, 8월에도 채밀할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하고, 특히 국유지 조림사업에 있어 밀원수를 의무적으로 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6. 07. 14 / 농민신문 -

한우 · 양봉 업계 손 잡았다

한우업계와 양봉업계가 손을 잡았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최근 양봉업계의 밀원수 부족 문제 해결과 더불어 농장 환경개선을 위해 신청을 받아 농장 주위에 헛개나무, 음나무 등의 밀원수를 심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협회 회원농가들은 8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50%의 정부 보조로 농가부담금은 그루당 헛개나무 350원, 음나무는 680원이다.

축산업계에서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업계 내부의 win-win 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양봉협회(회장 전기현) 관계자는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이때 밀원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와 양축농가들이 함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 2006. 7. 3 / 축산신문 -